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기초교육 방법

김 태 곤
(제주대학교)

Kim, Tae-gon. 2004. Methods in Teaching Basic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1(1), 65-80.

The present paper is to examine some educational methods which are considered necessary in teaching the Korean language to foreigners. First, it introduces the system of vowels, consonants and syllabic structures of Korean to read the Korean language. Second, it talks about the basic sentence patterns and sentence final ending expressions. Finally, its focus goes on to explaining some characteristics of Korean on how to add case particles, pre-sentence endings, and sentence endings. (Cheju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우리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의 습득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국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수의 증가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맞아떨어져, 국내 여러 대학에서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의 경우 이른바 ESL(제2언어로서의 영어) 과정과 이의 교육 방법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어도 이른바 KSL(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의 교육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자격 있는 강사 배출을 위한 교육도 시행되고 있으나 더 많이 요구된다.¹⁾ 제주대학교도 이번 학기부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본인이 이 강좌의 초급반을 맡으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언어 교육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을

총체적으로 가르쳐야 효과가 있고, 이러한 것의 지도는 그 나라 언어의 특징과 기본 어법을 알게 해야 외국어 습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어 사용에서 요구되는 한국어의 특징과 기본 구조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지도에 일조하고자 한다. 여기서 논제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초교육 방법'이라고 하지 않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기초교육 방법'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한국어 교육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어를 모어(mother tongue ; native language)로 쓰지 않는 동포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2. 한글 자모와 그 결합

우리나라 문자인 한글은 음소문자다. 그래서 한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음절이 이루어져 成音이 되는데, 특히 한국어는 초성과 중성의 결합이나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결합으로 성음이 된다. 그러므로 한국어를 말하고, 읽고, 쓰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어에서 실지로 사용되고 있는 한글 자모를 먼저 익혀야 한다. 이미 우리말을 할 줄 아는 내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자모 익히기 교육이 아닌 문장 중심의 교육이 흥미와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말을 모르며 대부분 성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어느 정도 논리성이 요구되므로 한글 구성의 자모 교육과 문장 교육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한글 자모를 일람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글 자모 일람표

<초성>(Initial sound)	<중성>(Middle sound)	<종성>(Final sound)
1. ㄱ [g]	a. ㅏ [a]	1. ㄱ [k]
2. ㅋ [kk]	b. ㅑ [æ]	2. ㆁ [k]
3. ㄴ [n]	c. ㅓ [ya]	3. ㄴ [k]
4. ㄷ [d]	d. ㅕ [yæc]	4. ㄷ [n]
5. ㅌ [tt]	e. ㅗ [eo]	5. ㄹ [n]
6. ㄹ [r]	f. ㅛ [e]	6. ㅍ [n]

9. ㅃ [pp]	i. ㅛ [o]	9. ㄹ [k] (예외, 늑고[neulkko] 등)
10. ㅅ [s]	j. ㅜ [wa]	10. ㅁ [m]
11. ㅆ [ss]	k. ㅝ [wae]	11. ㅂ [l] (예외, 밭다[bapta])
12. ㅇ	l. ㅞ [oe]	12. ㄷ [l]
13. ㅈ [j]	m. ㅟ [yo]	13. ㅊ [l]
14. ㅊ [jj]	n. ㅢ [u]	14. ㅌ [p]
15. ㅅ [ch]	o. ㅤ [wo]	15. ㅍ [l]
16. ㅋ [k]	p. ㅥ [we]	16. ㅍ [m]
17. ㅌ [t]	q. ㅦ [wi]	17. ㅖ [p]
18. ㅍ [p]	r. ㅧ [yu]	18. ㅗ [p]
19. ㅎ [h]	s. ㅡ [eu]	19. ㅛ [t]
	t. ㅨ [ui]	20. ㅜ [t]
	u. ㅣ [i]	21. ㅇ [ng]
		22. ㅈ [t]
		23. ㅊ [t]
		24. ㅋ [k]
		25. ㅌ [t]
		26. ㅍ [p]
		27. ㅎ [t]

위의 <표 1> 일람표를 보면, (1) 초성은 19개인데 이 중 ‘ㅇ’은 음은 없고 모음 앞에 표기만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ㄱ, ㄷ, ㅃ, ㅆ, ㅈ’은 된소리 (tension)로 목이 썩기면서 발음된다.

(2) 중성은 모두 21개인데 이 중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등 10개이고, 나머지는 중모음이다. 한국어는 이처럼 모음이 21개나 되어 수많은 소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3) 중성은 현재 한국어에서 27개가 표기된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등 홑받침 14개, ‘ㄱ, ㅆ’ 등 쌍받침 2개, ‘ㄲ,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등 겹받침 11개다. 그러나 받침의 발음은 중성 자리에서 모두 실제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고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등 7개만이 원래 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 나머지 받침은 앞의 7개 받침 중의 하나로 발음되는데, 다음과 같이 [] 안의 음으로 발음된다.

히읃[히은]

ㅍ, ㅑ, ㅓ	[ㅂ] : 뽕다[뽕따], 읊다[읊따], 값[갑]
ㄴ, ㄹ	[ㄴ] : 앓다[안따], 많다[만:타]
ㄷ	[ㄱ] 또는 [ㄷ] : 닭[닥], 늪고[늘꼬]
ㅌ	[ㅍ] : 삶[삼:]
ㄹ	[ㄹ] 또는 [ㅂ] : 여덟[여덜], 밭다[밭:따]
ㄷ, ㄹ, ㄱ	[ㄹ] : 외곶[외곶], 할다[할따], 달다[달타]

그런데 한국어 받침 중 하나인 ‘ㅎ’은 음운환경에 따라 복잡하게 발음되는 데, 위의 예에서처럼 ‘ㅎ’ 다음에 연결되는 음이 없이 단독으로 쓰일 때는 [ㄷ]로 발음되지만(히읃[히은]), ‘ㅎ’ 다음에 뒤따르는 음이 올 적에는 음절 발음에서 ① 묵음되거나 ② [ㄴ] 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③ 다음 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므로 유의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의 각각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놓은[노은] 놓을[노을] 놓아[노아] 놓으니[노으니] 놓이다[노이다]
 - ② 놓는[논는] 놓네[논네] 놓느냐[논느냐]
 - ③ 놓다[노타] 놓고[노코] 놓게[노케] 놓던[노던] 놓지[노치]
- 닿소리[다쏘리] 닿소[다쏘] 많소[만:쏘] 삶소[실쏘]

이와 같이 한국어의 종성체계는 복잡하므로 너무 자세히 가르칠 필요 없이 위에서 제시한 <표 1> 일람표를 중심으로 가르치면 된다.

한글의 읽기와 쓰기의 교육방법은 먼저 한글의 구성 방법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예를 제시한다.

V	ㅏ	■	아
CV	ㄷ + ㅏ	■	다
CVC	ㄷ + ㅏ + ㄹ	■	달

(V ; 모음, C ; 자음)

읽기 교육은 위 <표 1> 일람표의 로마자를 이용하여 읽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가르친다.

안녕하세요? [An-nyeong-haseyo]
 감사합니다. [Gamsa-hamnida]

쓰기 교육은 위 <표 1> 일람표의 번호와 순서대로 제시된 알파벳을 이용하여 교육시킨다. 예를 들면, 먼저 번호와 알파벳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자모를 찾아 한글을 쓰도록 한다.

예)

3a8 ; (날) 1a18 ; (값) 10a10 ; (삶) 5a8 ; (딸) 15i21 ; (총) 8c17 ; (법)

이런 방식으로 () 안에 한글을 쓰도록 하고 로마자 발음을 이용하여 읽게 한다. 또한 이런 식으로 학생 스스로 자습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재에 제시된 많은 문장을 보고 쓰도록 하여 한글 쓰기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따라 읽도록 하여 읽고 쓰기에 재미를 붙이도록 한다. 한글은 표기와 그 발음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위의 <표 1> 일람표를 이용한 읽는 법과 쓰는 법을 알면 쉽게 익힐 수 있다. 세종대왕도 훈민정음 서문에서 우리 문자를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고 했고, 또한 혹자는 한글을 어깨너머로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라고 하여 ‘어깨너머글’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3. 한국어 기본 文型

외국어를 배울 적에 그 언어의 기본 문형(basic sentence pattern)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의사소통 등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 한국어도 자모와 음절의 소리 내는 법을 알았으면 곧바로 문장단위의 회화와 글쓰기를 익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의 습득을 위해 한국어의 기본 문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기본 문형은 문법학자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통일된 문형으로 정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기본 문형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는 영어의 기본 문형인 5형식과 비교하여 가르치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 (3) 제3형식 S + V + O
- (4) 제4형식 S + V + I.O + D.O
- (5) 제5형식 S + V + O + C

그러나 영어는 SVO 문장구조이고, 한국어는 SOV 문장구조이므로 한국어의 기본 문장구조는 영어와는 다르고 형용사의 쓰임도 다르다. 그러므로 굳이 이 형식에 맞추어 한국어의 기본 문형을 만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국어의 독자성을 살려 한국어에 적합한 기본 문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

<한국어 4형식>

- (1) 제1형식 S + V
- (2) 제2형식 S + O + V
- (3) 제3형식 S + C + V
- (4) 제4형식 S + O + C + V

이는 문장의 근간성분(주성분)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만으로 된 기본 문형으로, 한국어는 보어(C)가 제한적으로 쓰이므로 이 ‘보어+서술어’ 관계 문장을 제3형식으로 하고, 대신 활발히 사용되는 ‘목적어+서술어’ 관계 문장을 제2형식으로 했다. 또 한국어의 제4형식은 영어의 제4형식과 제5형식을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한국어 ‘목적어+보어+서술어’ 관계 문장에 적합하다.

한국어 문장을 지도할 때는 한국어의 기본 문장구조가 ‘SOV’임을 강조하고 각 형식에 알맞은 쉬운 예를 많이 들어주어 읽히고 쓰게 한다. 다음에 간단한 예문을 든다.

- (1) 제1형식 S + V
 - ① 꽃이 핀다.
 - ② 꽃이 붉다.
 - ③ 꽃은 식물이다.

제1형식은 주어와 서술어로 되어 있는데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성분으로 구성된다. 한 문장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이들 성분은 있어야 한다. 위에서 서술어가 ①은 동사, ②는 형용사이고, ③은 ‘체언+서술격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An-nyeong-haseyo]
 감사합니다. [Gamsa-hamnida]

쓰기 교육은 위 <표 1> 일람표의 번호와 순서대로 제시된 알파벳을 이용하여 교육시킨다. 예를 들면, 먼저 번호와 알파벳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자모를 찾아 한글을 쓰도록 한다.

예)

3a8 ; (날) 1a18 ; (값) 10a10 ; (살) 5a8 ; (딸) 15i21 ; (총) 8c17 ; (법)

이런 방식으로 () 안에 한글을 쓰도록 하고 로마자 발음을 이용하여 읽게 한다. 또한 이런 식으로 학생 스스로 자습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재에 제시된 많은 문장을 보고 쓰도록 하여 한글 쓰기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따라 읽도록 하여 읽고 쓰기에 재미를 붙이도록 한다. 한글은 표기와 그 발음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위의 <표 1> 일람표를 이용한 읽는 법과 쓰는 법을 알면 쉽게 익힐 수 있다. 세종대왕도 훈민정음 서문에서 우리 문자를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고 했고, 또한 혹자는 한글을 어깨너머로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라고 하여 ‘어깨너머글’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3. 한국어 기본 文型

외국어를 배울 적에 그 언어의 기본 문형(basic sentence pattern)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의사소통 등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 한국어도 자모와 음절의 소리 내는 법을 알았으면 곧바로 문장단위의 회화와 글쓰기를 익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의 습득을 위해 한국어의 기본 문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기본 문형은 문법학자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통일된 문형으로 정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기본 문형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는 영어의 기본 문형인 5형식과 비교하여 가르치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 (3) 제3형식 S + V + O
- (4) 제4형식 S + V + I.O + D.O
- (5) 제5형식 S + V + O + C

그러나 영어는 SVO 문장구조이고, 한국어는 SOV 문장구조이므로 한국어의 기본 문장구조는 영어와는 다르고 형용사의 쓰임도 다르다. 그러므로 굳이 이 형식에 맞추어 한국어의 기본 문형을 만들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국어의 독자성을 살려 한국어에 적합한 기본 문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

<한국어 4형식>

- (1) 제1형식 S + V
- (2) 제2형식 S + O + V
- (3) 제3형식 S + C + V
- (4) 제4형식 S + O + C + V

이는 문장의 근간성분(주성분)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만으로 된 기본 문형으로, 한국어는 보어(C)가 제한적으로 쓰이므로 이 '보어+서술어' 관계 문장을 제3형식으로 하고, 대신 활발히 사용되는 '목적어+서술어' 관계 문장을 제2형식으로 했다. 또 한국어의 제4형식은 영어의 제4형식과 제5형식을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한국어 '목적어+보어+서술어' 관계 문장에 적합하다.

한국어 문장을 지도할 때는 한국어의 기본 문장구조가 'SOV'임을 강조하고 각 형식에 알맞은 쉬운 예를 많이 들어주어 읽히고 쓰게 한다. 다음에 간단한 예문을 든다.

- (1) 제1형식 S + V
 - ① 꽃이 핀다.
 - ② 꽃이 붉다.
 - ③ 꽃은 식물이다.

제1형식은 주어와 서술어로 되어 있는데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성분으로 구성된다. 한 문장이 성립하려면 적어도 이들 성분은 있어야 한다. 위에서 서술어가 ①은 동사, ②는 형용사이고, ③은 '체언+서술격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②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는 영어와는 달리 형용사 자체가 직접 서술어가 된다.

(2) 제2형식 S + O + V

- ① 학생이 책을 읽는다.

제2형식은 서술어가 동작의 대상이 되는 성분인 목적어를 요구한다. 위에서 ①의 서술어 '읽는다'는 '책'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

(3) 제3형식 S + C + V

- ① 풀이 얼음이 된다.
- ② 시간이 금과 같다.
- ③ 꽃은 동물이 아니다.

제3형식은 서술어가 내용을 보충하는 성분인 보어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 위에서 ①, ②, ③과 같은 서술어 '된다, 같다, 아니다'는 '얼음이, 금과, 동물'과 같은 보어가 각각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

(4) 제4형식 S + O + C + V

- ① 나는 그를 친구로 삼았다.
- ② 그는 책을 나에게 주었다.

제4형식은 서술어가 동작의 대상이 되고 내용을 보충하는 성분인 목적어와 보어를 요구한다. 위에서 ①, ②는 목적어와 보어가 있음으로써 문장이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근간성분의 문장에 부속성분인 관형어와 부사어를 사용하여 말을 하거나 문장을 작성하면 더욱 구체적인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할 수 있다. 관형어(adjetival modifier)는 체언 앞에 놓여 그것을 수식하는 성분으로 관형사, 관형사형 어미인 '-(으)ㄴ, -는, -(으)ㄹ, -던'으로 끝나는 용언, 그리고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체언 등이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지도한다.

(1)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 ③ 웃는 소리가 난다.
- ④ 웃던 소리가 사라졌다.
- ⑤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

(2)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 ① 나는 저 꽃을 좋아한다.
- ② 나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샀다.
- ③ 나는 달리는 사람을 보았다.
- ④ 나는 살던 집을 팔았다
- ⑤ 나는 제주의 경치를 좋아한다.

(3) '체언+이다'로 구성된 서술어를 수식하는 관형어

- ① 이것은 새 집이다.
- ② 이것은 아름다운 집이다.
- ③ 저것이 지는 해다.
- ④ 이것이 내가 살던 집이다.
- ⑤ 이것은 누구의 집이나?

위의 (1), (2), (3)에서 각각 수식어가 ①은 관형사이고, ②, ③, ④는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연결되었으며, ⑤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첨가하여 쓰였다.

다음으로 부사어(adverbial modifier)는 주로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이다. 이를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지도한다.

- ① 눈이 다 녹았다.
- ② 밤이 매우 짧다.
- ③ 하늘에는 별이 많이 있다.
- ④ 빛이 찬란히 반짝거린다.
- ⑤ 나는 연필을 칼로 깎는다.

4. 한국어의 종결어미 표현법

한국어는 첨가어로 체언에 조사가 붙어 곡용하고,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 활용을 행하며, 활용어미의 어간과 조사를 합쳐서 종결어미라고 한다. 종결어미는 문장의 끝부분에 위치하며, 문장의 의미를 완결짓는 역할을 한다. 종결어미는 문장의 끝부분에 위치하며, 문장의 의미를 완결짓는 역할을 한다.

종결어미는 한 문장을 종결시켜 주는 기능을 가진 어미다. 종결어미의 종류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응낙형 등 여섯 가지로 나누기도 하나, 여기서는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니 만큼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등 네 가지로 간단히 분류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

한국어 용언은 어간에 어미 '-다'를 붙이면 기본형이 된다. 예를 들어, 동사 어간 '가'에 어미 '-다'를 붙이면 '가다'가 되는데 이를 기본형이라고 하고, 어간 '가'에 어미 '-는다'를 붙이면 '간다'가 되어 평서형, 어미 '-느냐'를 붙이면 '가느냐'가 되어 의문형, 어미 '-아라'를 붙이면 '가라'가 되어 명령형, 어미 '-자'를 붙이면 '가자'가 되어 청유형이 된다.

또한 한국어는 경어법이 발달되어 쓰이므로 외국인이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는 보통 상대 높임법의 등분을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는데, '격식체'는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 등 네 話階로 나누고, '비격식체'는 '두루높임', '두루낮춤' 등 두 話階로 나눈다. 이를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格式體>

- | | |
|---------------------|------------|
| 아주높임(합쇼체) : -(스)브니다 | ○ 학교에 갑니다. |
| 예사높임(하오체) : -오 | ○ 학교에 가오. |
| 예사낮춤(하계체) : -네 | ○ 학교에 가네. |
| 아주낮춤(해라체) : -(느)니다 | ○ 학교에 간다. |

<非格式體>

- | | |
|-----------------|-----------|
| 두루높임(해요체) : -어요 | ○ 학교에 가요. |
| 두루낮춤(해체) : -어 | ○ 학교에 가. |

그러나 이러한 한국어의 경어법이 외국인에게는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것이므로 '격식체'의 '아주높임'과 '아주낮춤', '비격식체'의 '두루높임'과 '두루낮춤' 등 네 가지만 가르치면 실용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격식체는 공식 석상이나 문어체에 적합하고, 비격식체는 대화체에 적합하다. 또 격식체는 공식적이고 거리감을 두는 말투이며, 비격식체는 그렇지 아니하여 요즈음 언중들은 비격식체의 종결어미를 많이 사용한다.

<표 2> 한국어 종결어미 표현법

종결어미 형태 (Form)	격식체 (Formal Style)		비격식체 (Informal Style)	
	아주낮춤 (Familiar, Inhospitable)	아주높임 (Respect)	두루낮춤 (Familiar, Inhospitable)	두루높임 (Respect)
평서형 (Declarative)	-ㄴ다 -는다	-습니다 -습니다	-아 -어	-아요 -어요
의문형 (Interrogation)	-느냐?	-습니까? -습니까?	-아? -어?	-아요? -어요?
명령형 (Imperative)	-아라 -어라	-시오 -으시오	-아 -어	-아요 -어요
청유형 (Suggestion)	-자	-하시다 -옵시다	-아 -어	-아요 -어요

예(Example)

어간 말음이 모음으로 끝나는 말 : 가다(go)

어간 말음이 받침으로 끝나는 말 : 먹다(cat)

■ 평서형

간다	갑니다	가	가요
먹는다	먹습니다	먹어	먹어요

나는 학교에 간다. (아주낮춤)

저는 학교에 갑니다. (아주높임)

나는 학교에 가. (두루낮춤)

저는 학교에 가요. (두루높임)

나는 밥을 먹는다. (아주낮춤)

저는 밥을 먹습니다. (아주높임)

나는 밥을 먹어. (두루낮춤)

저는 밥을 먹어요. (두루높임)

■ 의문형

가느냐?	갑니까?	가?	가요?
먹느냐?	먹습니까?	먹어?	먹어요?

■ 명령형

■ 청유형

가자	갑시다	가	가요
먹자	먹읍시다	먹어	먹어요

5. 한국어의 특징 - 첨가어

영어의 특징이 굴절어라면 한국어의 특징은 첨가어라는 데 있다. 이러한 한국어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한국어를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쉽다. 첨가어는 화자가 의사 표현에서 문법적인 기능이나 의미를 나타낼 때 필요한 형태소를 첨가해서 표현하는 언어다. 이러한 한국어의 특징을 외국인 학습자에게 주지시키고 한국어를 가르쳐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5.1. 조사 첨가

한국어는 체언에 조사를 연결하여 문장성분을 나타내게 한다. 그러므로 어떤 조사가 연결되느냐에 따라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등의 문장성분이 되어 문장을 구성한다. 다음에 각 격조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주격조사 : ‘이, -가, -께서’가 체언에 연결되어 주어가 된다.

- ① 바람이 분다.
- ② 개가 달린다.
- ③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위에서 ①은 받침 있는 음절 다음에 쓰인다. ②는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다음에 쓰인다. ③은 주체를 높일 때 쓰인다.

(2) 서술격조사 : ‘이다’가 체언에 연결되어 서술어가 된다.

- ① 이것이 책상이다.
- ② 저 사람은 의사다.

위에서 ②는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에서 ‘이’가 생략되어 쓰이기도 하는 예다.

(3) 목적격조사 : ‘-을, -를’이 체언에 연결되어 목적어가 된다.

위에서 ①은 받침 있는 음절 다음에 쓰인다. ②는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다음에 쓰인다.

(4) 보격조사 : 주어와 같이 체언에 '-이, -가'가 연결되어 보어가 되는데, 서술어 '아니다, 되다'의 지배를 받는다.

- ① 저것은 책이 아니다.
- ② 이것은 바나나가 아니다.
- ③ 물이 얼음이 된다.
- ④ 그는 판사가 되었다.

위에서 ①, ③은 받침으로 끝나는 음절 다음에 쓰인다. ②, ④는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다음에 쓰인다.

(5) 관형격조사 : '-의'가 체언에 연결되어 관형어가 된다.

- ① 나의 집은 언덕 위에 있다.
- ② 저것이 바로 나의 집이다.
- ③ 국민들은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다.
- ④ 저것은 나의 책이 아니다.

위에서 '-의'는 각각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수식하기 위해 쓰였다.

(6) 부사격조사 : '-에, -에서, -(으)로, -(으)로써, -과' 등이 체언에 연결되어 부사어가 된다.

- ① 어머니는 집에 계신다.
- ② 내 친구가 내일 서울에서 출발한다.
- ③ 내 친구는 모레 미국으로 떠난다.
- ④ 미션이는 칼로써 사과를 깎는다.
- ⑤ 아름다움이 꽃과 같다.

위에서 ①의 '-에'는 낙착점 처소를 나타낸다. ②의 '-에서'는 출발점 처소를 나타낸다. ③의 '-(으)로'는 지향점 처소를 나타낸다. ④의 '-(으)로써'는 도구를 나타낸다. ⑤의 '-과'는 비교를 나타낸다.

(7) 호격조사 : '-아, -야' 등이 체언에 연결되어 독립어가 된다.

- ① 미션야, 빨리 오너라.
- ② 철수야, 빨리 가자.

음절 다음에 쓰인다. 그러나 화자가 청자를 높여야 할 때는 ‘선생님’, ‘사장님’ 처럼 접미사 ‘-님’을 체언에 붙여 부른다.

이밖에 격조사가 아니면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다음 예와 같은 ‘접속조사’가 있다.

- ① 사과와 배와 감은 과일이다.
- ② 나는 빵하고 우유를 먹는다.

위에서 ①, ②의 ‘-와, -하고’는 체언과 체언 사이를 접속시켜 주는 기능과 열거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한국어에서 ‘은, 는’은 많이 쓰이는 보조조사다.

- ① 나는 한국어 과목을 좋아한다.
- ② 밥은 한국인의 주식이다.
- ③ 나는 과학은 좋아한다.

위에서 ①, ②의 ‘-은, -는’은 주어를 나타내는 기능과 화제(topic)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③의 ‘-은’은 대조·배타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조사다.

5.2. 존대 선어말어미 첨가

한국어는 주체를 높여 말할 때는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첨가한다. 그러나 말하는 이 자신을 높여 말할 수는 없으므로 그럴 때는 ‘-시-’를 첨가하지 않는다.

- ① 할머니께서 말씀하신다.
- ② 어머님이 슬피 우신다.
- ③ 아버지께서 물고기를 잡으신다.

위에서 ①, ②의 ‘-시-’는 어간 말음이 모음이나 받침 ‘ㄹ’일 때 그 다음에 쓰이고, ③의 ‘-으시-’는 어간 말음이 ‘ㄹ’ 이외의 받침일 때 그 다음에 쓰인다.

5.3. 시제 선어말어미 첨가

시제 사용법을 앞으로써 정확한 말하기와 글쓰기를 할 수 있다. 한국어는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제 선어말어미라는 형태소를 첨가해야 되는데 다음과 같다.

5.3.1. 현재 시제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사 기본형에 선어말어미 ‘-는’ 또는 ‘-니.’을 첨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제에 형용사와 서술격조사에는 아무 말도 첨가되지 않는다.

- ① 영수는 지금 사진을 찍는다.
- ② 철수는 지금 산을 오른다.
- ③ 요즘 정원에 핀 장미꽃이 아름답다.
- ④ 지금 하늘에 떠 있는 것이 구름이다.

위에서 ①은 ‘-는’이 앞의 말이 받침이 있을 때 쓰인 것이고, ②는 ‘-니.’이 앞의 말이 받침 없이 모음으로 끝날 때 쓰인 것이다. ③의 형용사 ‘아름답다’와 ④의 서술격조사 ‘이다’는 시제가 현재 상황인데 아무런 형태소가 들어가지 않았다.

5.3.2. 과거 시제

과거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용언의 기본형에 선어말어미 ‘-았-’ 또는 ‘-었-’을 첨가한다.

- ① 순이는 철수에게서 꽃다발을 받았다.
- ② 길수는 밥을 일찍 먹었다.
- ③ 영수는 이미 학교에 갔다.
- ④ 버스가 정거장에 섰다.
- 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위에서 ①의 ‘-았-’은 양성모음 다음에 쓰이고, ②의 ‘-었-’은 음성모음 다음에 쓰이며, ③, ④의 ‘-았-’은 모음 ‘ㅏ’나 ‘ㅑ’로 끝난 어간에 첨가된 것인데, 본말 ‘가았다’, ‘서었다’가 각각 축약된 것이다. 또 ⑤의 ‘-었-’은 동사 ‘하다’의 어간 다음에서 쓰인다.

것-'을 첨가한다.

- ① 나는 내일 서울에 가겠다.
- ② 나는 이따가 밥을 먹겠다.
- ③ 나는 내일 서울에 갈 것이다.
- ④ 나는 이따가 밥을 먹을 것이다.

위의 ①, ②에서 볼 수 있듯이 '-겠-'은 음운환경에 구에 받지 않고 쓰인다. 그리고 ③, ④는 관형사형어미 '-(으)ㄹ'에 의존명사 '것'이 합친 것으로 ③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다음에, ④는 어간 말음이 'ㄹ' 이외의 받침인 환경에서 쓰인다.

5.4. 연결어미 첨가

한국어는 문장을 이어줄 때 접속사가 없는 대신 연결어미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미 활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사람이 의도하는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다. 외국인들은 복잡한 한국어의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예문의 () 안의 의미를 가진 문장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에 맞는 연결어미 사용법을 지도해야 된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 지도하고 그런 의미의 다른 문장도 만들어 연습하도록 한다.

- 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羅列)
- ② 그는 일하면서 노래한다. (羅列)
- ③ 남이야 밥을 먹든지 술을 마시든지 상관 말라. (選擇)
- ④ 남이야 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무슨 상관인가? (選擇)
- ⑤ 부지런히 일하면 성공하는 법이오. (條件)
- ⑥ 비가 오니까 날이 시원해진다. (原因)
- ⑦ 아무리 애쓰더라도 이뤄질 수 없겠다. (假定)
- ⑧ 비가 많이 오는데 우산이 없어 어떡하지? (說明)
- ⑨ 먼 길을 떠나려고 하였더니 비가 온다. (意圖)
- ⑩ 외국으로 가고자 하니 허락해 주시오. (意圖)
- ⑪ 우리 서울에 구경하러 갑시다. (目的)
- ⑫ 날씨가 추워질수록 옷이 잘 팔린다. (益甚)
- ⑬ 비가 올뿐더러 바람이 세게 분다. (添加)
- ⑭ 어린이도 알거늘 하물며 어른이야. (比較)

⑦ 아까는 비가 오다가 이제는 눈이 온다. (中斷)

6. 결 론

이상과 같이 한국어를 제1언어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도움이 되는 한글 자모와 그 결합, 한국어 기본문형, 한국어의 종결어미 표현법, 조사, 존대 선어말어미, 시제, 연결어미 등에 대하여 간단하고 쉽게 익힐 수 있는 자료와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한국어의 습득은 듣기, 말하기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을 전반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특징을 알게 하고, 기본 문법을 이해하여 이를 기초로 한국어 사용 능력이 증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태곤(1998), “우리말 표준발음 지도법(1)”, 백록어문 14, 백록어문학회.
 김태곤(2000), “화법교육에서 언어예절 지도 연구”, 어문연구 108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길록(1977), 「국어문법연구」, 일신사.
 이은정(1988), 「한글 맞춤법·표준어해설」, 대제각.
 이응백·안병희(1978), 「문법」, 보진재.
 이희승(1978), 「새문법」,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김태곤
 제주도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자우편: kimtgs@cheju.ac.kr